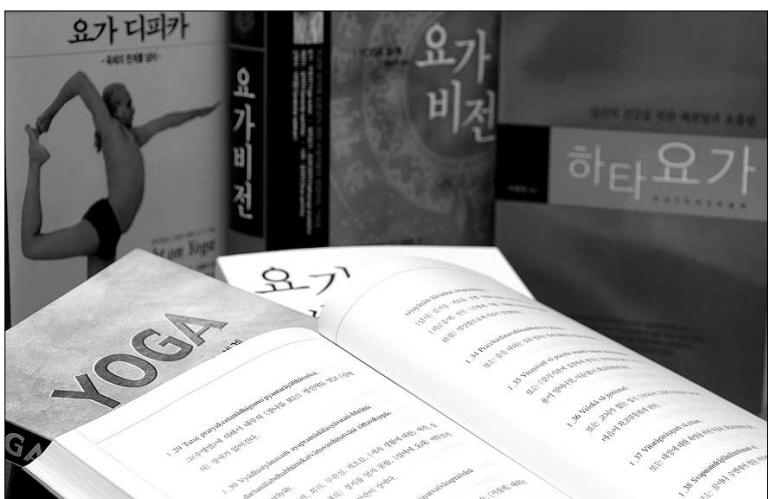


전문가에게 묻다
'요가경전의 모든 것'

동작 위주 요가수련의 불에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요가경전'에 입각한 요가철학에 관심이 늘고 있다. 최근 몇몇 요가수련원은 전문가들을 초청해 요가경전 강의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이례적으로 요가수행법을 담고 있는 경전과 문헌들을 묶은 책 <요가비전>(지혜의 나무)이 출간되기도 했다.

동작·호흡 등 구체적 정보 수록

요가경전은 어떤 것?
넓게는 요가와 관련한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는 텍스트를 요가경전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요가경전이라 하면 <요가경>(Yoga-Sutra)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요가는 <요가경>이 성립됨으로써 인도 정통 철학의 한 학파로 자리잡았다.



최근 이례적으로 요가수행법을 담고 있는 경전과 문헌들을 묶은 책 <요가비전>(지혜의 나무)이 출간됐다.

하타요가 14~15세기경 수행법으로 등장
후대 여러사람에 의해 편집 완성도 떨어져

마음작용의 역제법인 수행방법으로서 요가의 8단계와 집중 선정 상태를 종합해서 하는 명상에 대한 설명이다. '변화하는 마음'은 윤회와 마음작용, 마음과 참나의 관계, 마음작용의 역제와 해탈에 관한 것으로 마음작용의 역제 상태를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제 12권 <모크사다라마>와 <바가바드 기타>에서 요가 사상을 읽을 수 있다. 특히 <바가바드 기타>에는 그간 우파니샤드 등에 산만하게 흩어져있던 행법이 잘 정리돼 있다. 그리고 가냐 요가, 카르마 요가, 바티 요가 등 철학 윤리 종교 등과 가까운 새로운 형태의 요가를 선보이고 있다.

<요가경>외에 요가 수행법을 담고 있는 경전은 없다

요가를 특정한 수행법을 일컫는 술어로 표기한 것은 중기 우파니샤드인 <타이트리야 우파니샤드>가 처음이다. 이후 <카타 우파니샤드>, <슈베타수바라타 우파니샤드>, <마이트리 우파니샤드>를 거치면서 조금씩 진전된 요가 행법을 소개하기 시작한다.

이들 우파니샤드의 요가 사상은 원시 요가에서 고전 요가체제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파니샤드보다 더 발달한 요가사상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 사이에 형성된 <마하바라타>에서 찾을 수 있다. <마하바라타>는 바라타 종족의 전쟁 이야기를 서술한 18편 10만 송의 대서사시로,

의 하타 요가 문헌이 남아 있다.

요가경전 어떤 도움 주나

현재 <요가경>의 원문과 주석이 한국어로 제대로 번역된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요가경>은 지극히 압축된 '암호와 같은 단어'로 이뤄진 탓에 그것에 대한 주석이 필수적인데, 국내 번역서의 경우 영어나 일본어에 대한 2차 번역에 의지한 경우가 많아 의미전달에 문제가 많다. 그러나 연구 번역 작업과 무관하게 <요가경>이 한국의 요가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요가경>이 형이상학적 사상을 담고 있는 일종의 철학서에 가까운 탓이다. 오히려 <하타요가 프라디피카> <게란다상하타> 등의 하타요가 문헌은 요가 동작과 호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활용의 폭이 넓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인도의 지형과 기후에 맞게 쓰여진 내용을 우리나라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불경과 같이 깨달음의 법문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례없는 요가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것이기에 절대적인 수행의 지침서로 삼기에는 미약하다는 평가다. 반면 인도철학계나 요가철학계에서 요가경-주석의 가치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전제한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아파트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샘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회주사는 본래는 인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중로구 명동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2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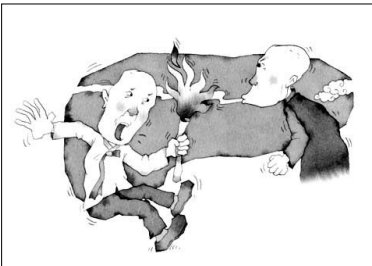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2> 경전을 불사르다

요즈음 불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된 <간화선>은 지난 3년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상재(上梓)된 책이다. 드디어 조계사 법당에서 고불식을 마치고 선림의 면면을 밟고 있는 어른스님들을 모시고 불교계 및 일반인 기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후일담을 함께 나누었다.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말 한마디는 뒤뚱수를 서늘하게 후려친다.

덕산 스님에게 건네주었다. 덕산 스님이 그 불을 받으려는 참나 '후!' 하고 그 불을 꺼버렸다. 그 순간 덕산 스님은 환연히 깨쳤다. 문밖이 어둡다는 말은 나의 무명(無明)을 인정하는 말이다. 또 여기서 지축(紙軸)이라는 말이 예사롭지 않다. 지(紙)는 종이(경전)이고 축(軸)은 불을 불었다는 말이다. 이미 용담 선사(龍潭 宣師)가 경전 한 페이지를 태우면서 무명(無明)을 가득한 덕산의 눈을 밝혀 주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는 복선(伏線)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아침 덕산 스님은 애지중지하던 금강경 주석서를 끄집어내어 법당 앞에 쌓아놓고는 햇볕을 높이 들고서 이렇게 외쳤다.



"현묘한 변론을 다 하여도 넓은 허공에 터럭 한 오라기를 둔 것이요, 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큰 바다에 툄 한 방울을 던지는 것과 같다." 말을 마치고는

불붙인 종이 건네받는 순간 깨친 덕산 스님 애지중지하던 저서 '금강경소초' 태워버려

고 선사가 그것을 가져 없이 불살라 버린 심정을 이해할 것도 같다. 이미 사구화(死句)되어 버린 공안을 활구로 되살려내고자 하는 선사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다비장에서 거화하듯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그 소초에 불을 붙였다.

선종사에는 책을 태우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가장 극적인 스토리로 책을 태운 사람은 '덕산방(德山棒)'의 주인공 덕산 스님일 것이다. 그는 본래 금강경의 대가였다. 자신의 저술인<금강경소초>에 대한, 하늘을 찌를듯한 자부심은 평범한 노파의 '교외별전적(敎外別傳的)' 질문을 받고 완전히 환관(昏)한 순간 문자의 한계를 절감하고 응답순신 선사를 찾아가간다. 선사를 만나 오랫동안 이런저런 자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후 방문을 나왔다. 그런데 이미 바깥은 깜깜했다. 신발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방안으로 들어왔다.

사구(死句)는 기존의 어둠해설에 의거하여 드는 공안이며, 활구(活句)는 수행자 자신의 사무침에 의거하여 드는 화두이다. 조주를 찾아간 수행자에게 '뜰 앞에 잣나무'는 사구이다. 그렇다고 해서 맨 처음 시원(始源)한 활구의 가치를 담보하려는 법은 없다. 누구든지 '뜰 앞에 잣나무'가 조주를 찾아간 한 수행자의 눈에 비친 잣나무처럼 그렇게 달아날 때 그것은 여전히 활구다.

"왜 다시 들어왔는가?" "문 밖이 어둡습니다." 그러자 용담 스님은 종이에 불을 붙여 (원문은 '지축(紙軸)'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철 선사께서 '문자를 보지 말라'고 한 것은 어둠의 사구회를 경계한 말이다. 사구가 되느냐 활구가 되느냐 하는 것은 문자 자체의 허물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이다. 설명 사구라 할지라도 그것을 활구로 바꾸어 놓는 것이 진짜 정법안(正法眼)을 갖춘(藏) 선지식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개 천 지 조 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양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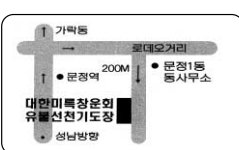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量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되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황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行)함으로써 혁명적인(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대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초공력에너지, 생령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료)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제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전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솔도법(원기력, 수인력, 대외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으로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